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희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편집 : 양재웅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순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실시

(3월 9일부터 새벽 4:50)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9일)로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인류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절(4.24) 전, 40일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간입니다(히 12:1).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을 지키기 전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시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이 절기를 지키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4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40'이란 숫자는 시내 산에서 모세의 40일간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훈련과 준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사순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요 3:3)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력교구 중심으로 진행될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적극 참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순절이 되기 바랍니다(막 1:35).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3월 9일(수)	1, 15, 24교구	3월 29일(화)	3, 12, 16교구
3월 10일(목)	2, 7, 20교구	3월 30일(수)	4, 17, 18교구
3월 11일(금)	3, 8, 16교구	3월 31일(목)	6, 14, 19교구
3월 12일(토)	예배위원회	4월 1일(금)	5, 15, 23교구
3월 13일(주)	예배위원회	4월 2일(토)	예배위원회
3월 14일(월)	전교인	4월 3일(주)	예배위원회
3월 15일(화)	4, 9, 18교구	4월 4일(월)	전교인
3월 16일(수)	5, 10, 19교구	4월 5일(화)	8, 16, 20교구
3월 17일(목)	6, 11, 21교구	4월 6일(수)	7, 13, 21교구
3월 18일(금)	1, 7, 12교구	4월 7일(목)	1, 9, 18교구
3월 19일(토)	예배위원회	4월 8일(금)	4, 10, 19교구
3월 20일(주)	예배위원회	4월 9일(토)	예배위원회
3월 21일(월)	전교인	4월 10일(주)	예배위원회
3월 22일(화)	8, 13, 22교구	4월 11일(월)	전교인
3월 23일(수)	14, 15, 23교구	4월 12일(화)	3, 11, 17교구
3월 24일(목)	10, 20, 24교구	4월 13일(수)	2, 12, 22교구
3월 25일(금)	2, 9, 11교구	4월 14일(목)	5, 23, 24교구
3월 26일(토)	예배위원회	4월 15일(금)	6, 13, 14교구
3월 27일(주)	예배위원회	4월 16일(토)	예배위원회
3월 28일(월)	전교인	4월 17일(주)	예배위원회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좌석표는 8면 참조

2011년 제2차 성찬식 및 교육훈련원 개강

오늘 1~5부예배 시에, '주의 만찬과 유월절'(눅 22:14~20)이라는 말씀과 함께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또한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육훈련원 교육이 오늘부터 개강(제1교육관 307호, 15:30)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메시아의 죽음 68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의 구조

그동안 겟세마네에서의 세부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기 원한다.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 기술할 때 거의 비슷한 흐름과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마가는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마가의 집에서 중요한 모임(마 26:20 ; 행 1:2, 12:12)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마태는 세관이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핵심을 보고 계산하는 데 탁월했다. 이와 같은 성향들이 복음서를 기술할 때 드러났다.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막 14:32). 마태 또한 이와 거의 똑같이 기술했다. 단지 마태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이에'(then)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다(마 26:36,38,45). 그런데 '이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특히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고난의 잔이며, 그것을 마셔야 한다는 점을 마태는 부각하였다. 이것은 이어지는 기도의 장면(막 14:33~42 ; 마 26:37~4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마가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어 복음을 설명하였고, 마태는 예수님의 움직임과 간구에 초점을 두어 복음을 기술한 것이다. 마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 원인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에 있음을 밝혔으며, 마태는 연약하심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고후 13:4 ; 히 12:1~2).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의 구조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것은 곧 믿음의 승리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3'이라는 숫자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셨다. 이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3을 거룩하고 완전한 수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3은 '드러난다, 밝혀진다'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3번 부르심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고(삼상 3:2~8), 다윗은 3번 화살을 쏨(삼상 20:20~22)으로 진실을 확인하였다.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배신이 드러났으며,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인 '유대인에게는 금기되었던 음식물'을 먹으라는 환상이 3번 있은 후(행 10:9~16)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십자가를 지셨다.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에 대한 마가와 마태의 초점은 각각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 마가의 초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 또한 마태의 초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눅 18:8).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회개하자. 믿음은 곧 회개이다. 우리 모두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자.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Sermon for Next Sunday

HOW CAN WE LIVE VICTORIOUSLY IN THIS EVIL WORLD?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ans 12:2)

The Bible makes it quite clear that Christians should not conform to this world because this world is not good. How should we live then? Today's Bible verse instructs believers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their minds. Ephesians 4:23 confirms the same thing,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Our minds need to be set on the things above in order to be renewed. It's easy to get sidetracked when your mind is wrapped up in stupid, earthly things, which most of us spend a great deal of time doing. Too many of today's Christians don'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enewing their minds by loving God and not being conformed to the ways of this world. Let's look at some biblical reasons to motivate us to stop focusing on earthly things and start concentrating on heavenly things so that we can live victoriously in this evil world.

The world in which we live today is evil. It wasn't always evil. When God created this earth He made everything good, like its light (sun, moon, stars), vegetation, and animals (see Gen. 1:4,12,18,25,31). God specifically said that everything He made was good. So, this world was originally very, very good in the eyes of God. Sadly, the world lost its goodness and became evil through man's disobedience to God (Gen. 3:17~18). After Adam and Eve disobeyed God the world was infected with sinfulness. Thankfully, God provided a way to save us from sin. John the Baptist exclaimed upon seeing Jesu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Jn. 1:29). God sent His Son into this evil world to save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1 Peter 1:5 assures believers of God's salvation, "who are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for a salvation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Christ's sinlessness and sacrificial blood paid the price for our sin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1 Pet. 1:19). Jesus came the first time to save sinners,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sinners, "And He order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solemnly to testify that this is the One who has been appointed by Go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Ac. 10:42). God has chosen a day for Jesus to judge the world, "because He has fixed a day i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through a Man whom He has appointed, having furnished proof to all men by raising Him from the dead"(Ac. 17:31). Judgment day is coming to make all things right, "And I saw the dead, the great and the small,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from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deeds"(Rev. 20:12). Now is the time for salvation, not later, "And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Rev. 20:15).

Jesus Christ's death saves us from sin while we are still in this evil world,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so that He might rescue us from this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Gal. 1:4). Right now is blessing time! Jesus died for our sins, so that we could be righteous. God sent Himself so that we could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once again, "He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He will tread our iniquities under foot. Yes, You will cast all their sins Into the depths of the sea"(Mic. 7:19). Before Jesus Christ, humanity was sentenced to eternal death,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Eph. 2:1). God loves us so much,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Eph. 2:4~5). Jesus Christ's death was a voluntary gift to us, a gift not earned or even deserved. This world is a really bad place right now, but God gives us Christ to make the sin in us go away,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2 Cor. 5:21). Do you believe it?

If you accept Jesus Christ's death by faith and receive His salvation it will lead to a life of constant struggle in this sinful and evil world, but you don't have to worry because life in this world is very short and life in heaven is eternal. When Christ removes our sins He changes our every natur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7). Believers still live in a fallen world, but it is our faith that leads us to victory. Things in this world will not change until Jesus comes to reign forever and ever, "to whom be the glory forevermore. Amen"(Gal. 1:5). If you stick with Jesus Christ He will always lead you in any struggle, problem, or temptation to a victorious life. With Christ in charge, your life will always glorify God. Believers will live the eternal life,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ny night; and they will not have need of the light of a lamp nor the light of the sun, because the Lord God will illumine them; and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Rev. 22:5). Faith in Jesus leads you to the amazing place called heaven! Jesus prays for you and me to be victorious, "I ask on their behalf; I do not ask on behalf of the world, but of those whom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I do not ask You to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o keep them from the evil one."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that they themselves also may be sanctified in truth"(Jn. 17:9,15,19). Through Christ we can live victoriously now and forever.

My dear friends, this world loves money, fame, and power. By loving God through our faith in Christ these things cannot affect our life. Loving God protects us from all the different worldly philosophies of life. Although we are surrounded by evil God should never be blamed for it. We are reaping the consequences of our inherited and personal sin. In spite of all the evil that surrounds us God is still our Father and He will fully protect us while we are in the world and on our way out. We can live victoriously by not conforming to this evil world. The victory is ours in Christ Jesus. Amen.

다음 주일 설교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김성관 목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본문은 신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23도 동일한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시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리석은 일들로 정신을 빼앗기게 될 때 여러분은 곁길로 빠져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세상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성경적인 몇몇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빛(태양, 달, 별), 식물, 동물(창 1:4,12,18,25,31) 등등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이 만드신 만물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세상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함을 잃고 악해졌습니다(창 3:17~18).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죄악 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5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자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무죄와 대속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9).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초림하셨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행 10:42).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한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행 17:31).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심판 날이 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갈 1:4). 바로 지금이 은총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9).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류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엡 2:1).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 2:4~5).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으며 심지어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한 자발적인 선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실로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구원을 받는다면 이 죄 많고 악한 세상과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매우 짧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신자들은 여전히 죄악 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갈 1:5).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는 여러분을 어떠한 싸움, 문제 또는 유혹에서든지 이끌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담당하실 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계 22:5).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을 놀라운 천국으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사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9,15,19).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각기의 모든 세상적인 철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비록 우리가 악에 의해 둘러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 이것이 천국의 잔치가 아닌가!

올해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 땅 역삼동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심에 진실로 감사한다.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요 삶 가운데 꼭 붙잡아야 할 진리이기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음의 잔치,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청지기훈련이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것이 천국의 잔치가 아닌가! 그렇다. 죄로 인해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안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 오직 주님 손에 내어 맡겨 참 평안을 누리며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찬송하게 하심은 죄악에 물든 영혼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 오늘 따라 심령 속 깊이 파고 들어오며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선자(권사, 11교구)

✝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작년 청지기훈련 때, 여러 가지 바쁜 일과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7시가 훨씬 넘어서야 교회에 도착해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못해 많이 아쉬워 해온 터라 이번 청지기훈련은 많이 사모하면서 몇 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다. 드디어 당일이 되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뒤로한 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직장인 군포에서 일찍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하니 5시도 채 안되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위임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의 여유로움은 감사, 그 자체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만의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순간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선행으로 의로운 듯 착각 속에 살아온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오직 자비와 긍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아닐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잊지 맙시다." 목사님의 눈물 겨운 간절한 호소. 그 순간 나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자로 오신 한 분, 나의 사랑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보게 된다. 이미숙(집사, 22교구)

✝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매번 청지기훈련 때가 되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몸도 마음도 바빠진다. 보통 금요집회 때는 학교에서 돌아와 교복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고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하면 예배가 벌써 시작되어 2~30분이 지나가버리는데 청지기훈련 때는 7시가 되기 전에 벌써 본당에 자리가 꽉 차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갈릴리홀이나 베다니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40분 일찍 출발하여 본당 앞자리에 앉아 첫 찬양인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면서 분주했던 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짐과 함께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밖에 없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고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를 평생토록 전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박지홍(고등부)

✝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다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다'라는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대로이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지만 다시금 말씀해 주신다. 죄의 명부에서 생명의 명부로 옮겨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수고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 오! 그 이름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사랑의 말씀이 과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아닌가!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다. 청지기훈련 초청에 응하여 나온 나와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그 사랑 앞에 평강이 밀려온다. 세상에 외치고 싶은 그 이름 예수!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신다. 한 영혼이 구원의 증거인 믿음을 얻는다면 그것이 가장 기뻐할 기적이 아니겠는가. "남은 인생 동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김지영(집사, 23교구)

✝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이른 저녁을 먹고 학교를 나서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교회에 가기 위함이었다.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학교에 있을 때에는 항상 실패함을 느꼈다. 세상에서 심어주는 불안감에 매사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라는 두 가지 분류 속에서 많은 것을 세상에 내주었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불안감에 혹 때로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에 취해서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던 내 모습이었다. 항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수많은 죄들을 지었다. 계속해서 짓게 되는 이런 죄들로 더욱 괴로웠고 번민하게 되었다.

어느덧 역삼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교회로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 속에서도 세상과 교회의 대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술, 쾌락 등과 관련한 온갖 것들이 역과 교회 사이의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더군다나 금요일 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거리 속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심취해 있는 듯 보였다. 그 거리를 조금 지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금요일 밤, 일주일 동안의 고단한 일이 끝나고 휴식이 시작되는 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노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다. 교회 바로 밖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수많은 놀거리들이 산재해 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을 마친 후 쉬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교회로 나오신 이 많은 성도 분들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였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나 같이 항상 세상에 지고 죄만 짓는 사람을 포함해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함께 들어야 할 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나와 같은 죄인들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무한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유한의 세계로 오신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그 목적은 무지함 속에서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항상 세상에 지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너무나 와 닿는 말씀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수많은 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정말 큰 위안이고 감사의 말씀이었다. '우리 불쌍히 여기사 자유하게 하소서'라는 찬양 가사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포로로 끌려가서 불렀던 그 찬송. 그와 같은 찬송이 나에게서도 흘러나왔다. '죄 속에서 항상 실패하고 낙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소서.' 예배가 끝난 후 나오는 길, 밤이 어두워 날씨는 쌀쌀했지만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가슴 속은 따듯하기만 했다. 김영재(대학부)

✝ 뜨거운 눈물

주여!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골고다 언덕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채 오르시며 온갖 멸시와 천대, 침 뱉음과 배신을 당하신 주님. 두 손, 두 발 다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나의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지 않는 남동생 가족이 처음으로 청지기훈련에 참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뵈옵는 그 날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정기순(집사, 3교구)

✝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올리게 하시고 그 비밀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교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어처할 수 없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래로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식하고 답답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인간의 얕은 계산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보다 더욱 안타깝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통해 주님을 욕보였던 나의 삶, 나의 속사람. 바벨론 강가의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의 의만을 고집하며 나의 사정과 형편만 주님 앞에 고백하던 나약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나의 소망을 점검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중호(안수집사, 17교구)

✝ 우리는 무덤 속을 거닐며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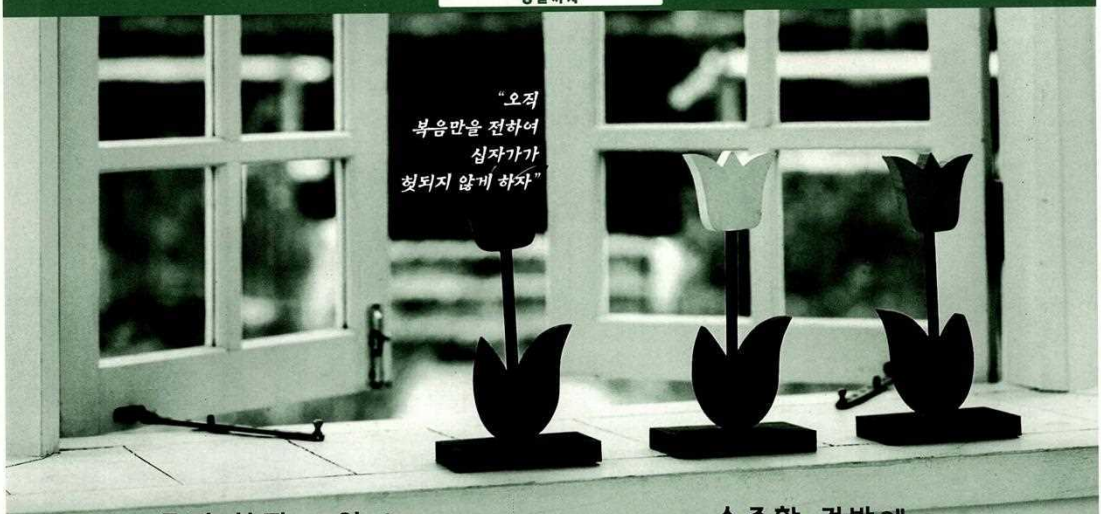
회개만이 나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신선하고 커다란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굉소의 나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며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었음을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 속을 거닐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최규태(안수집사, 2교구)

✝ 다시 돌아보는 나의 죄

청지기훈련을 통해 말씀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며 교회로 향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설교말씀을 듣는 내내 진정한 회개와 나의 죄가 너무 많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늘 전하는 말씀이다. 하지만 나 역시 세상 문제에 부딪힐 때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과 고백을 뒤로한 채 그 문제에 대한 걱정과 사람들의 마음에 중심이 가곤했다. 한 발은 성경에 한 발은 세상에 두었던 믿음은 아닌지 내 뜻과 의지를 앞세우고 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아 회개하던 중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공동묘지라는 말씀에 가슴이 벅찼다. 새롭게 들려온다. 주님의 말씀이 부려지는 동안 진정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의 생명을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힘 있게 외치는 우리의 '죄'. 목사님의 음성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마음을 적셨다. 가슴이 아파온다. 다시 돌아보는 죄와 허물. 나의 것 모두 내려놓기를 원해본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한 그 이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이영순(집사, 1교구)

✝ 회개의 삶

가족, 친구에게, 지인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초청장을 주며 전화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온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러 오라고 전하는 모습의 실천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부부라서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간이라, 식구들 저녁 챙겨야 하는 시간이라 등등. 참 많은 아쉬운 인간의 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으러 온 친구와 같이 참석한 청지기훈련의 말씀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임과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말씀을 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심과 한없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시로 믿음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에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순간순간 자신을 부인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월산(집사, 5교구)



아무런 불평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팀이 간 곳은 첩첩한 산골로 우리를 보면 아이들도 도망가는 라오스 카시였다. 전도지 없이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위축되었으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아침 경건회의 말씀에 힘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얌기한 복음 한 문장 한 문장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우기여서 비가 계속해서 왔지만 아무런 불평도 없이 7명 모두 우산을 쓰고 진흙 땅을 질퍽거리고 다니면서 축호전도를 하였다. 마을마다 절이 있었지만 그곳에도 준비된 영혼은 있었다.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의 대답에 힘을 얻었다. 선교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지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집사님, 불편한 다리로도 궂은 일 마다하지 않는 권사님, 처음 입하는 사역이어서인지 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집사님…, 팀원들의 열정에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험한 산악지대를 오가는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박재경(집사, 23교구)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눌한 언어와 주님이 주신 마음만을 가지고 도착한 선교지.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 보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사신 것 같았고, 방에는 할아버지께서 큰 산소통에 의지해 숨을 쉬며 성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한 뒤에 집을 나오려 하자 할머니께서 두 손을 꼭 잡고 안아 주시며 우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왔다는 것에 감사해 하셨고, 큰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홀로 어렵게 신앙 생활하시는 그분께 큰 힘과 위로를 주시며,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게 하시려고 보내셨나 봅니다.

마을에서 추방당한 뒤 찾아 간 한 숲 속 깊은 마을에선 성경을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 외지인이라곤 양배추 팔러 오는 사람뿐인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이후엔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알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선미(집사, 15교구)

순종한 것밖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교지의 여러 농촌을 돌아다니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남녀노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영적으로 어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시고 저희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주셔서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라 하셔서 갔고, 전하라 하셔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 것밖에 저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새 생명이 탄생됨을 바라볼 때 놀라운 주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지 않으시면 한 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러한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까운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선교를 갔다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주께서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영인(안수집사, 10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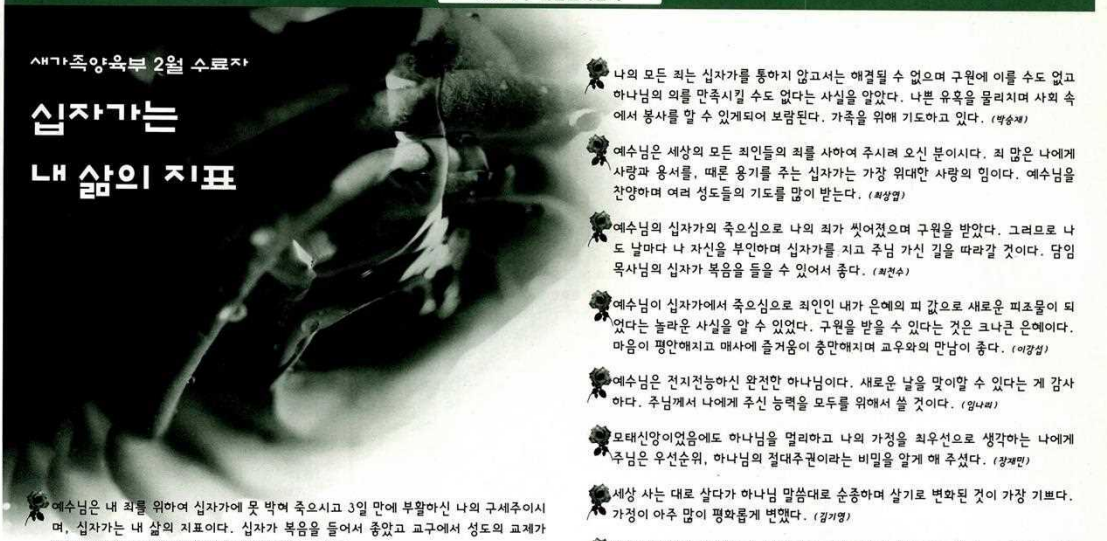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가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선교지의 언어도 완전치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선교지의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씨는 뿌렸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라고 했을 때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외치고 찬양할 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 주세요. 더욱더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순민(집사, 3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일(수) ~ 3월 10일(목)	11교구 1팀	이양호



새가족양육부 2월 수료자

십자가는 내 삶의 지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시며, 십자가는 내 삶의 지표이다.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좋았고 교구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좋고 가족들이 은혜 충만해서 좋다. *(강정욱)*

남자친구를 만나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오게 되었다.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던 나를 예수님은 만나주셨다. *(문선미)*

결혼 후 남편의 권유로 예수님을 처음 접하였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에게 한결 같이 따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감동되고 보면 볼수록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며 마음이 벅차오른다. *(이미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빛이고 사랑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에 우리도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찬양이 너무 좋아 성령충만을 느낀다. *(김예원)*

예수님은 영 죽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과 주일을 지킬 것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음이 좋다. *(이용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쁜 유혹을 물리치며 사회 속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되어 보람된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박승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오신 분이시다. 죄 많은 나에게 사랑과 용서를, 때론 용기를 주는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힘이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받는다. *(최상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어졌으며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이다. 담임목사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최천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은혜의 피 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매사에 즐거움이 충만해지며 교우와의 만남이 좋다. *(이강섭)*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이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모두를 위해서 쓸 것이다. *(임나리)*

모태신앙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에게 주님은 우선순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 *(장재민)*

세상 사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변화된 것이 가장 기쁘다. 가정이 아주 많이 평화롭게 변했다. *(김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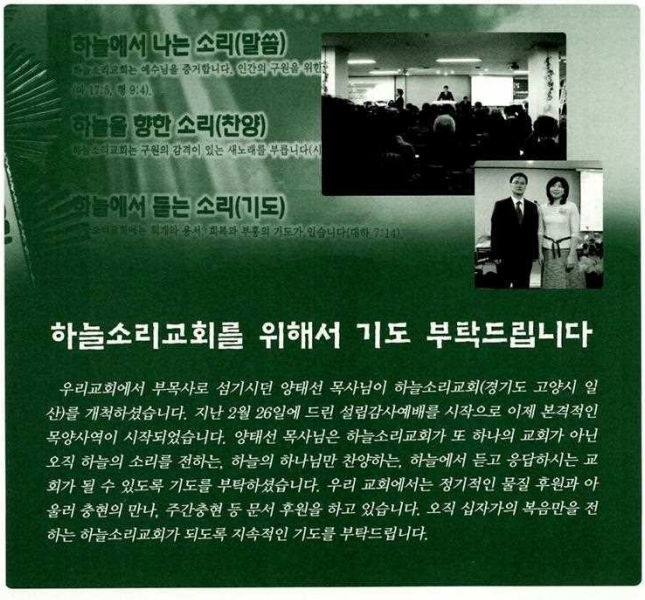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겼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 것이다. *(신재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삼 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기쁨이 있다. *(이유용)*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로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싶다. *(김정애)*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한다. 늘 감사하다. *(이유정)*

항상 믿음에 있어 누릴 수 있는 자는 먼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더욱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온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되게 기도할 것이다. *(김지애)*



하늘소리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시던 양태선 목사님이 하늘소리교회(경기도 고양시 일산)를 개척하셨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드린 설립감사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목양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양태선 목사님은 하늘소리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오직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하늘의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기적인 물질 후원과 아울러 충현의 만나, 주간충현 등 문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하늘소리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722	박성해	양육반	2	정복득
1723	한민자	양육반	2	정복득
1724	한형식		20	지영순
1725	이수종	양육반	1	김경순
1726	임성자	양육반	1	오정례
1727	오승준	중등부	8	김재욱
1728	김다형	대학부	5	박종서
1729	황선영	대학부	7	최은빈
1730	신지훈	대학부	12	정구환
1731	박무진	양육반	3	주순희
1732	박현옥		1	송복임
1733	원하리	양육반	19	이근우
1734	임혜주	중등부	19	이수예
1735	김도래미	대학부	12	임귀은
1736	이영주	양육반	2	김익태
1737	이봉구	양육반	18	김익태
1738	박예원	양육반	5	조재록
1739	최윤경	양육반	3	김순이
1740	강병도	양육반	3	김순이
1741	강이안	유치부	3	김순이
1742	정에스더	양육반	10	김옥자
1743	윤소미	청년1부	1	윤석구
1744	김성현	고등부	2	김영환
1745	김예홍	유치부	2	최영득
1746	고순자	양육반	10	박은주
1747	나영웅	청년1부	17	기준현
1748	배예나		2	배태랑
1749	배세나		2	배태랑
1750	권운상	양육반	10	강동화
1751	김진희		2	
1752	문암미	청년1부	1	
1753	김소방	외선부	25	김은정
1754	사시다란	외선부	25	장명자
1755	마린	외선부	25	김진경

교회소식

모 임

1. 집사회 연합 월례회
   일시 : 7일(월) 월요새벽기도회 후 장소 : 갈릴리홀

별 세

1. 노승진 성도(이희정 성도의 남편, 11교구 동두천2구역) / 1일 별세, 3일 장례

결 혼

1. 최영욱 군(최부국 성도 · 박종숙 집사의 아들, 19교구)과 유영경 양(유수용 성도 · 김향춘 성도의 딸, 타교) / 12일(토) 13:00, 아카데미 컨벤션 웨딩부페
2. 배상준 군(배종록 안수집사 · 김승희 집사의 아들, 22교구)과 김혜진 양(김동근 집사 · 차은경 집사의 딸, 타교) / 12일(토) 13:30, 충현교회 갈릴리홀
3. 벨크리스찬 군(벨트레버 성도 · 벨헬렌 성도의 아들, 타교)과 장유선 양(장문식 집사 · 최해연 성도의 딸, 4교구) / 12일(토) 15:00, JS강남웨딩문화원 6층(S홀)

남녀전도회장 찬양연습
일 시 : 매주일 15:00~16:00(4월 3일까지) 장 소 : 제1교육관 401호

집사회 찬양연습
일 시 : 매주일 15:20~16:00(5월 22일까지) 장 소 : 제1교육관 507호 대 상 : 안수집사 전원

전도회 1 · 2지회 주력기도회
일 시 : 6일(오늘) 16:00 장 소 : 갈릴리홀 대 상 : 1~6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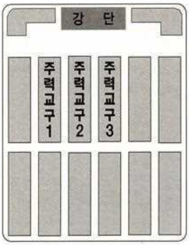
수화교실 개강
일 시 : 3월 13일~6월 26일 매주일 15:10~16:20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16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 · 3 · 5 · 7지회 : 307호 2 · 4 · 6 · 8지회 : 407호

선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10호(동말레이시아) 506호(네팔) 508호(스리랑카) 509호(캄보디아)

동서울노회 제79회 정기노회 각종 고시신청서 제출안내 ***3월 10일(목)까지**
① 각종 고시 청원(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② 신학 계속 추천 청원(총신신대원 재학생)
접수 및 문의 : 사무국 행정과 (☎ 552-8200, #404)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좌석



2011년 전반기 교육훈련원 *신청 / 교육국(제1교육관 2층, #473)*

연합 개강예배	일 시 : 3월 6일(오늘) 오후 3:30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대 상 : 수강생 전원 필참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 3월 9일 ~ 5월 25일(12주간)
· *오후반 2:30 ~ 4:00*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1호)* **여호수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507호)*
· *저녁반 8:00 ~ 9:30*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교사 양성부	교육기간 : 3월 6일 ~ 5월 22일(12주간) 장소 : 제1교육관 307호, *매주일 오후 3:30 ~ 4:30*
찬양대원 양성부	교육기간 : 3월 6일 ~ 5월 22일(12주간) 장소 : 베다니홀, *매주일 오후 3:30 ~ 4:30*
충현전도대원 훈련	교육기간 : 3월 6일 ~ 5월 22일(10주간)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매수요일 오후 1:30 ~ 2:30*

2011년 CMTC 선교훈련

일시 : 6일(오늘) 장소 : 갈릴리홀

시 간	강 의
18:15~18:25	오리엔테이션
18:25~19:15	주제강의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45	2011년도 선교정책

2011년 CMTC 선교수련회

일시 : 12일(토) 9:30~12:30
장소 : 제1교육관 501호 *(*팀 단위로 참석요망)*

3월 충현 기도의 창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 사순절기(3.9~4.23)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3.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7.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9.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7~3/13)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토)	13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구형	이광현/오춘성	김근영/이기봉	김백만/최용길	박지훈/최창하	이재현/정원임	박용현/이향란
설 교 본 문	메시아의 죽음	막 6:14~29	요 1:29~39	빌 2:5~11	고전 1:18~25	히 5:1~10	시 22:23~31
주 력 교 구			1, 15, 24교구	2, 7, 20교구	3, 8, 16교구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 담당 (3/9~3/13)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3/9	수요 I	진정한 복음과 다른 복음(갈 1:8) 김성관 목사	황의연	김영숙	세상 모두 사랑 없어(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구원을 위한 예비하심(욘 4:5~11) 박은효 목사	문성수	송행자	나의 생명 되신 주(실로암 찬양대)
3/11	금요집회	김성관 목사	유재진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 목관 5중주 / 바리톤 오상덕
3/13	주일 I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롬 12:2) 박지훈 목사	장지원	진홍용	〈예배 전 찬양〉
	주일 II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롬 12:2) 김익환 목사	정민권	김영달	십자가 그늘 밑에 외 /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주일 III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롬 12:2) 김성관 목사	하종철	최세진	오 신실하신 주 외 / 바순 이승연(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IV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롬 12:2) 안치원 목사	이재현	문효식	주님 주실 화평 외 / 클라리넷 강혜경(아멘 오케스트라)
	주일 V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롬 12:2) 유재진 목사	김백만	최윤덕	그 때까지 외 / 바리톤 오상덕(벧엘 찬양대)
	주일찬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마 18:15) 김성관 목사	양재웅	이인용	가브리엘 찬양대 / 8교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 02-552-8200)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❶오전 9:40 본당 앞 출발 (9:50 남부교회, 10:20 야탑역 경유)
		❷오전 9:50 본당 앞 출발(직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Cambodian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초 등 1 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초 등 2 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부	오전 10:30	갈 릴 리 홀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 년 2 부	오후 12:10	제2교육관 2층

구 분	시 간	장 소
장 년 1 부	오후 12:15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 년 4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 바 다 부	오전 9:00(학생) 오후 12:4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수) 오전 10:30~12:00 (금) 저녁 6:30~저녁 9:0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 다 니 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 현 복 지 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강철형 (장년1부장), 고제숭 (행정위원장), 구원섭 (예배안내부장), 구재완 (3교구장), 구창회 (22교구장)
권명옥 (건축위원장), 김구형 (제1교구위원장), 김규석 (선교위원), 김단용 (장년4부장), 김명성 (외선부장)
김성호 (제1교육위원장), 김승곤 (장년2부장), 김신국 (함양농원부위원장), 김연근 (기획위원), 김연태 (10교구장)
김영달 (13교구장), 김영은 (영아부장), 김영주 (대학부장), 김윤환 (고등부장), 김종구 (기도원 · 동산부장)
김종홍 (9교구장), 김중선 (예루살렘찬양부대장), 김태식 (당회부서기), 김홍기 (에바다부장), 김환기 (봉사위원)
노은영 (예배위원), 류기명 (찬양위원장), 문효식 (소망부장), 박광식 (5교구장), 박덕양 (시설영선부장)
박상대 (임마누엘찬양대장), 박성명 (16교구장), 박우현 (할렐루야찬양대장), 박재현 (건축위원), 박홍규 (유아부장)
배춘식 (선교위원), 백봉선 (선교위원장), 백종운 (14교구장), 석영식 (재정위원), 송두섭 (재정위원장)
송한천 (탁아부장), 신광철 (15교구장), 신상수 (성례부장), 안동현 (장년3부장), 안석현 (제2교육위원장)
양기수 (새가족양육부장), 엄복섭 (전도위원), 예정호 (17교구장), 오순도 (차량안내부장), 원용철 (기도원부부장)
유상태 (7교구장), 윤병식 (건축위원), 윤석민 (청년1부장), 윤선한 (1교구장), 윤해균 (18교구장)
이계인 (재정위원), 이달옥 (유치부장), 이보신 (중등부장), 이상복 (청년2부장), 이상석 (새가족지원부장)
이상해 (시설영선부부장), 이성섭 (봉사위원), 이세영 (6교구장), 이실호 (봉사위원), 이창회 (선교위원)
이태식 (11교구장), 이호일 (동산부부장), 이홍기 (가브리엘찬양대장), 이 훈 (감사위원장), 임광신 (초등2부장)
임창식 (이엔찬양대장), 장경욱 (실로암찬양대장), 장철규 (21교구장), 장철환A (봉사위원장), 장철환B (제2교구위원장)
전계식 (예배위원), 전은배 (초중도서실부장), 전홍렬 (재정위원), 정선현 (제3교육위원장), 정창수 (기획위원장)
정철길 (20교구장), 정태동 (4교구장), 조윤준 (예배위원), 조종환 (예배위원장), 조중민 (8교구장)
지규성 (전도위원장), 진학래 (24교구장), 진홍용 (당회서기), 차신득 (새가족위원장), 최경하 (선교위원)
최민석 (초등1부장), 최세진 (2교구장), 최윤덕 (23교구장), 최진성 (19교구장), 추병창 (봉사위원)
함철주 (봉사위원), 황의만 (12교구장)

■ 부목사

강호성 (2교구), 김근영 (1교구), 김백만 (20교구), 김운창 (10교구), 김익환 (15교구)
김정훈 (7교구), 나기태 (19교구), 문성수 (4교구), 박용현 (14교구), 박은효 (18교구)
박인기 (에바다부), 박지훈 (8교구), 안치원 (24교구), 양재웅 (주간충현), 유재진 (3교구)
유현철 (대학부), 이광현 (16교구), 이재현 (6교구), 이회식 (12교구), 장지원 (13교구)
정민권 (5교구), 최상민, 탁정헌 (9교구), 하옥성, 하종철 (21교구)
하형욱 (23교구), 황의연 (22교구)

■ 여전도사

강덕필 (8교구), 강영미 (15교구), 강옥련 (1교구), 김말자 (14교구), 김연식 (3교구)
김정연 (10교구), 김정운 (24교구), 김정자 (16교구), 김정희 (4교구), 나영실 (22교구)
송진경 (대학부), 오숙영 (13교구), 옥미자 (9교구), 윤인숙 (6교구), 이복순A (20교구)
이복순B (11교구), 이옥주 (18교구), 이향란 (2교구), 임태주 (17교구), 장혜구 (19교구)
전은희 (7교구), 정원임 (23교구), 최문실 (12교구), 홍순애 (5교구), 황순란 (21교구)

■ 강도사 박만복 ■ 사랑부 신범식

■ 전임지휘자 김승희 김진협

■ 전임연주자 이에스더 장연희 한경숙

■ 선 교 사 송요한

Copyright© 2011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